古國 9

© 김이오, 2024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20일

지은이 김이오
펴낸이 이기봉
편집 좋은땅 편집팀
펴낸곳 도서출판 좋은땅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2길 26 지월드빌딩 (서교동 395-7)
전화 02)374-8616~7
팩스 02)374-8614
이메일 gworldbook@naver.com
홈페이지 www.g-world.co.kr

ISBN 979-11-388-3871-9 (03810)

• 가격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파본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제1권 夷夏東西
제2권 朝鮮의 분열
제3권 列國시대
제4권 제국의 建設
제5권 韓半島 정착
제6권 中原의 쇠락
제7권 百家濟海
제8권 三韓의 대립
제9권 三韓一統

목차

1권

1부 하늘을 열다

1. 흉도왕의 소도
2. 탁록대전과 단군조선
3. 堯와 舜
4. 도산회의와 夏나라
5. 中原을 차지한 商
6. 색불루의 혁명

2부 중원에서 싸우다

7. 周, 중원을 빼앗다
8. 서언왕과 東夏東西
9. 辰韓의 燕齊 원정
10. 山戎전쟁
11. 春秋戰國
12. 합종연횡

3부 고조선의 분열

13. 箕氏왕조의 등장
14. 中山國과 호복기사
15. 진개의 東胡 원정
16. 戰國의 영웅들
17. 또 하나의 서쪽별 의거

2권

1부 秦, 중원을 통일하다

1. 원교근공
2. 합종의 힘
3. 어긋난 趙燕전쟁
4. 三晉의 몰락
5. 통일제국 秦의 탄생

2부 저무는 고조선

6. 조선의 몰락과 창해역사
7. 秦의 장성과 멸망
8. 묵돌의 동도 공략
9. 위만과 기씨조선의 몰락
10. 유방의 漢
11. 평성의 치

3부 흉노의 시대

12. 초원제국 大漠
13. 마음작전
14. 漢漠의 대격돌
15. 하시주랑
16. 漢무제 대 이치사선우
17. 위씨조선과 창해국

3권

1부 漢무제와의 싸움

1. 衛漢전쟁과 위씨 몰락
2. 무제의 참회록
3. 흉노인 김일제
4. 漢二郡과 고두막한
5. 탐욕스러운 여인들

2부 북부여 시대

6. 북부여와 열국시대
7. 五선우와 흉노의 분열
8. 서흉노 질지
9. 파소여왕과 서나벌
10. 동부여와 주몽의 탈출

3부 고구려 일어서다

11. 부여의 부활 고구려
12. 고구려의 비상
13. 왕정군과 여인천하
14. 추모대제의 정복전쟁
15. 통일 대업의 달성

4권

1부 고구려의 분열

1. 유리의 등장
2. 소서노의 온조
3. 위나암 천도
4. 해명과 仕漢
5. 왕망의 新과 後漢

2부 후한과의 대격돌

6. 麗新전쟁과 학반령전투
7. 온조대왕의 伯濟
8. 서나벌과 낙랑
9. 대무신제와 을암대전
10. 金씨 일가의 한반도행

3부 한반도로 들어오다

11. 수로대왕과 加耶
12. 백제와 서나벌의 위기
13. 탐해의 사로국
14. 고구려의 요서 원정
15. 호동태자와 낙랑공주

5권

1부 반도 사로국의 탄생

1. 대무신제와 요동십성
2. 13년 伯徐전쟁
3. 반도 사로와 계림의 만남
4. 파사왕의 사로국 통일
5. 신명선제와 극동 정복

2부 고구려의 굴기

6. 정견여왕의 대가야
7. 태조의 요동 정벌
8. 사로국의 가야 원정
9. 지마왕과 흑치의 난
10. 비리 서부여의 등장
11. 일성왕과 지진내레

3부 백제의 한풀이

12. 좌원대첩
13. 길선과 고시의 난
14. 혼현왕 아달라와 벌휴
15. 초고왕의 부곡대첩
16. 고국천제와 을파소의 개혁
17. 선비의 등장과 삼국시대

6권

1부 요동을 잃다

1. 발기의 난과 공손씨
2. 포상8국의 전쟁
3. 이이제이
4. 공손연의 멸망
5. 서부여와 오환

2부 고구려의 요동 수복

6. 동천제의 시원
7. 중천제와 옥모의 사랑
8. 서부여의 시련과 모용선비
9. 을불과 후산의거
10. 미천제의 요동 수복

3부 반도의 부여백제

11. 극성진공 작전
12. 선비의 굴기
13. 부여백제의 등장
14. 여인천하 사로국
15. 다시 불타는 환도성

7권

1부 분노하는 고구려

1. 중원의 新삼국시대
2. 전연의 몰락
3. 고국원제의 전사
4. 여구왕의 대마 원정

2부 부여백제의 열도행

5. 비수전투와 전진의 멸망
6. 중원 심강의 몰락
7. 내물왕 모루한
8. 왜왕이 된 여휘
9. 광개토대왕

3부 선비, 신라를 차지하다

10. 신라 마립간시대
11. 장수제와 북연의 멸망
12. 부여씨 비유왕
13. 아차산의 비극

8권

1부 백제, 북위를 깨다

1. 삼국협상과 곤지
2. 동성대왕의 요서경략
3. 나제동맹
4. 무령왕의 南北정책
5. 남북조의 쇠퇴

2부 가야, 스러지다

6. 법흥제의 개혁
7. 사비 천도와 남부여
8. 북방의 맹주 고구려
9. 임나의 재건
10. 가야의 멸망

3부 대립하는 반도삼한

11. 남북조의 승자 北周
12. 隋의 중원통일과 돌궐
13. 평원제의 천도와 온달
14. 진흥대왕과 화랑도
15. 아마토의 은인 위덕왕
16. 麗隋전쟁

제9권 목차

1부 고구려, 隋唐을 깨다

1. 三國밀약 · 6
2. 지상 최대의 전쟁과 을지문덕 · 37
3. 隋唐의 교체 · 75
4. 백제 무왕의 꿈 · 99

2부 신라의 고립과 분투

5. 의자왕의 등장 · 122
6. 신라의 여왕시대 · 142
7. 연개소문과 여당전쟁 · 173
8. 춘추의 외교 · 208

3부 최후의 승자

9. 사비성의 통곡 · 236
10. 백제 부흥운동 · 265
11. 불타는 평양성 · 285
12. 羅唐전쟁과 삼한일통 · 329

제9권 후기 · 365

대하역사소설 《古國》을 마치며 · 368

1부 고구려, 隋唐을 깨다

1. 三國밀약
2. 지상 최대의 전쟁과 을지문덕
3. 隋唐의 교체
4. 백제 무왕의 꿈

북경 아래를 지나 발해만으로 흘러드는 영정하를 고대엔 요수遼水라 부르고, 그 좌우를 요서와 요동으로 구분했다. 오늘날엔 엄뚱하게도 요녕성을 관통하는 요하遼河(랴오허)로 그 기준이 바뀌었는데, 10세기 전후 거란의 동진에서 비롯되어 우리 상고사 해석의 혼란을 야기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韓민족은 이후 동으로 더욱 내몰리다가 한반도 아래로 갇혀 버렸고, 그마저 남북분단으로 대륙과 차단되어 섬나라 신세로 전락했다. 그사이 중국은 진시황의 장성을 산해관까지 잇고는 만리장성이라 부르고, 고대의 주요 하천이나 지명, 유적 등을 자꾸만 동쪽으로 옮겨 놓았다. 《삼국사기》가 등장한 고려조 이래로는 외압에 굳해, 스스로 조상들의 강역과 역사를 반도 안으로 축소하는 과오를 반복했으니 〈반도사관〉이 생겨난 배경이었다.

그렇게 韓민족의 역사가 오래도록 훼손되다 보니, 발해만 일대에서 조상들이 수천 년간 일궈 온 상고사가 끝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었다. 물리적 영토전쟁뿐 아니라, 민족혼이 담긴 역사전쟁에서조차 참패한 셈이었다. 그 결과 조선의 실학자들조차 이러한 위사僞史구도에 속아 자기 조상들의 계통을 잊은 채 북방민족을 오랑캐라며 무시했다. 그런데 기원 이후 중국을 지배한 민족은 대부분 韓민족에서 분화된 북방민족들로, 순수 화하족이 다스린 시대는 漢과 明왕조 정도였다. 즉, 흉노에 이어 선비(隋·唐)와 거란(遼), 말갈(金), 몽골(元), 여진(淸) 등 소수 북방민족이 번갈아 가며 마지막까지 중원을 다스렸다. 이들은 소위 인심사한人心思漢을 좇아 대륙으로 향했지만, 제각각 지배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했기에 오늘날 중화의 개념에 흡수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설령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 치더라도 이들은 언제나 북방의 종주국인 韓민족을 제일로 견제했고, 우리 민족과 경쟁상대인 또 다른 민족의 연합을 극도로 경계했다. 특히 明淸시대에는 드넓은 만주 지역을 아예 완충지대(DMZ) 삼아 인구 유입 자체를 차단했으니, 청 말기까지 개발되지 못한 이유였다. 조선과 청의 국경이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극동 진출과 일본의 한반도 및 만주 강점이 이어지면서 이 지역의 국경이 엉망이 되었다. 2차 대전 이후까지 조선은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오늘날까지 만주와 연해주에 이르는 동북 3성은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漢족들은 1911년 〈신해혁명〉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을 지배해 온 소수 북방민족, 특히 청나라 만주족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 국민당 정권이 민족과 반청을 주창한 이유였고, 공산정권 수립 이후에도 중화의 이름 아래 북방민족의 역사 지우기를 지속했다. 그러다가 사실상 만주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그럴 필요가 있냐는 자각과 함께, 이제는 반대로 북방민족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편입하는 작업에 몰두했으니 바로 〈동북공정〉이었다. 용케 한발 앞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이 황국 〈식민사관〉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반도사관을 고착시키는 한편, 三韓의 역사마저 4세기 이후의 것으로 축소, 날조시키는 데 집착한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처럼 광복 이후에도 주변에서의 역사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나 우리 지식인 사회는 속수무책이었다. 분단에 이은 전쟁으로 온 국토가

초토화된 채 먹고살기 바쁜 데다, 반도사관에 기대니 딱히 조상들의 상고사를 되찾을 일도 없었을 것이다. 조상들은 세계 最古라는 위대한 역사 유산을 남겨 주었건만, 못난 후손들이 이를 부인하는 셈이니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렇더라도 현대의 엄연한 주권국으로서 광복 80년 가까이 조상의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학계도 반도사관만으로는 고대사 해석이 절대 불가할뿐더러, 그것이 오류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넘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특히 1980년대 〈요하문명〉의 발견은 상고시대 조상들의 활동 영역이 하북과 산둥 등 대륙 중원으로까지 확장된 것임을 알리고, 반도사관을 일거에 깨뜨리는 사건이었다. 9천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거대 문명은 황하문명에 앞선 아시아 최초의 문명으로, 언어나 유물, 유전적 특징에서 배달동이의 문화이자 한반도와 연결된 것이었다. 그 후예들이 〈고조선〉을 일으켰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북방 기마민족이 중국과 유라시아, 한반도와 일본 등 사방으로 분화했던 것이다. 이들이야말로 문명의 개척은 물론, 고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문명의 전달자로서 인류 발전에 결정적 공을 세운 주역이었고, 소위 트랜스유라시아어Transeurasian languages족의 주인공일 것이다. 아시아의 상고사가 韓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 북방민족의 이주사 코리안 디아스포라diaspora였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천년 반도사관의 허구를 과감히 걷어 내야 하는 이유다. 따지고 보면 식민사관이니, 동북공정이니 하는 것도 남 탓이자 변명에 불과한 만큼, 스스로 제대로 된 역사를 되찾고 당당하게 역사전쟁에 맞서야 할 일이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사대주의와 근거 없는 문화적 열등감을 떨쳐 내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韓中日 3국은 많은 곳에서 서로의 역사를 공유한 데다 문화적, 혈통적으로 매우 높은 친연성을 지닌다. 따라서 초보적인 역사 갈등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서로의 역사를 인정하는 〈역사 화해〉로 나아가야겠지만, 그 이전에 역사적 팩트에 기반한 상고사 복원이 전제되어야 하니 쉽지 않은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 연구의 강역을 유라시아 전체로 넓히는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아시아 상고사에 대한 세계적 공론화 및 동조화가 필요하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古國》의 9권 시리즈를 통해 들여다본 숱한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반도사관의 편협한 역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 진위는 전문 역사가들이 가리겠지만, 저자는 이것이 잃어버린 우리 고대사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믿고 있다. 아울러 전편에 걸쳐 주목되는 2가지 특징, 즉 어느 나라든 예외 없이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고, 거대한 대세 전환의 시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듣고 싶다. 그때마다 시야를 멀리해 부지런히 주변을 살피고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 낸 지배층이 영웅적 성과를 올렸으니, 민족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역사는 그 나라의 존망과 명운을 갈이한다. 돌아보니 조상들이 정체성과 주체성을 굳건히 하고 외세에 당당히 맞섰을 때 나라를 지켜 낼 수 있었던 반면, 자신감을 잃고 흔들렸을 때는 온갖 수난을 당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대한 조상들의 역사를 외면한 채 현실에 안주한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 또한 한때의 영광일 수도 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백성들 누구나 글을 깨우쳐 스스로 지식을 향유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이유도

이러한 위민정신에 있을 테니, 오랜 역사가 전해 주는 삶의 지혜와 교훈이 보다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 주리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기적처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우리의 눈부신 성과에 온 세계가 놀라고 한류Hallyu 열풍에 휩싸여 있다. 세계인들이 지금의 왜곡된 우리 역사를 실제로 인식하기 전에, 위대한 조상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 어떤 이는 지나간 일보다 현재 또는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로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古國》을 통해 잃어버린 우리 상고사의 원형을 진정 그려보고 싶었다. 다행히 멀쩡하게 살아 숨 쉬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자체가 더없는 감동과 희망의 연속이었다. 소설《古國》이 우리로 하여금 역사를 더욱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창대했던 조상들의 상고사를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무모할 정도로 방대한 양의 책을 완독하고 끝까지 상고사 여행을 같이 한 독자라면, 역사를 사랑하는 이가 틀림없다. 저자로서 동류의식과 함께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뿐이다.

2024년 12월 金 炅吾 올림